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美-中 사이의 균열, 무역협상으로 메워지지 않을 듯
- ◇ (초점)-FOMC·분기말·금리인하·수급..이 자율 달려 최대 화두는 '지키기'
- ◇ (시장진단)-반등 탄력 확인한 달러/원, 매파 연준 더해지면 상승 전망 견고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시위 도중 한 시위 참가자가 화염병을 던진 뒤 몸에 불이 옮겨붙자 동작을 취하고 있다. (로이터/타이론 슈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9월20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88.0	0.3%	-6.1%	-4.1%	유로	1.1017	-0.5%	-3.9%	-4.4%
100엔 대비	1,109.1	-1.7%	-8.4%	-6.9%	엔	107.55	0.5%	1.9%	2.8%
유로 대비	1,314.5	-0.7%	-2.9%	0.2%	위안	7.0970	0.3%	-3.2%	-5.3%
위안 대비	168.23	-1.1%	-3.8%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6,935.07	-1.0%	15.5%	-5.6%
코스피	2,091.52	2.1%	2.5%	-17.3%	나스닥	8,117.67	-0.7%	22.3%	-3.9%
코스닥	649.07	3.0%	-3.9%	-15.4%	S&P500	2,992.07	-0.5%	19.4%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11.28	-0.8%	7.2%	-16.2%
국고채 3Y	1.332%	7.4bp	-48.5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397%	8.2bp	-48.7bp	-45.9bp	미국채 2Y	1.687%	-11.7bp	-81.1bp	60.7bp
국고채 10Y	1.455%	5.8bp	-49.3bp	-52.1bp	미국채 10Y	1.722%	-18.0bp	-97.0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58.09	5.9%	27.9%	-24.8%	한국 5Y	32.46	5.04	-5.60	-13.74
금(현물)	1,516.75	1.9%	18.2%	-1.5%	일본 5Y	22.76	2.76	0.98	-3.34
TR상품지수	2,297.35	1.1%	-3.1%	0.0%	중국 5Y	43.71	6.81	-22.76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9월 23일(월)>

- 관세청, 9월 1-20일 수출입 동향

<24일(화)>

- 한은, 8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25일(수)>

- 통계청, 7월 인구동향/8월 인구이동(12:00)

<26일(목)>

- 한은, 9월 소비자동향조사(06:00)
- 한은, 금융안정 상황(11:00)
- 통계청,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2:00)
- 기재부, 10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9월 발행실적(17:00)

<27일(금)>

- 기재부,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10:00)
- 한은,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12: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9월 23일(월)>

- 유로존, 9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17:00)
- 미국, 8월 전미활동지수(21:30)
- 미국, 9월 마르키트 제조업(서비스업) PMI 잠정치(22:45)
- 일본 휴장

<24일(화)>

- 일본, 9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9:30)
- 미국, 7월 주택가격(22:00)
- 미국, 7월 케이스실러주택가격(22:00)
- 미국, 9월 소비자신뢰지수(23:00)

<25일(수)>

- 일본은행(BOJ) 7월 29-30일 통화정책회의 회의록 발간(8:50)
- 뉴질랜드 중앙은행 기준금리 발표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20:00)
- 미국, 8월 건축허가 수정치(21:00)
- 미국, 8월 신규주택판매(23:00)

<26일(목)>

- 유로존, 8월 총유동성(M3)증가율(17:00)
- 유로존, 8월 가계대출(17:00)
- 미국, 2분기 기업이익 수정치(21:30)
- 미국, 2분기 GDP 확정치(21:30)
- 미국, 8월 도·소매재고 잠정치(21:30)
-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21:30)
- 미국, 8월 잠정주택판매(23:00)
- 미국, 9월 캔자스시티연은 제조업지수(자정)

<27일(금)>

- 일본, 9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CPI)(8:30)
- 중국, 8월 산업이익(10:30)
- 유로존, 9월 기업환경지수(18:00)
- 유로존, 9월 경기체감지수(18:00)
- 유로존, 9월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18:00)
- 미국, 8월 개인소득(21:30)
- 미국, 8월 내구재주문(21:30)
-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23:00)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관련 헤드라인 리스크가 또다시 확대된 만큼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변동성을 키우면서 상승 시도에 나설 전망이다.
-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185-1205** 원이다.
- 내달 있을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일부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은 협상 기대를 안고 안도 랠리를 펼쳤지만, 지난 주말 끝난 실무급 협상 이후 기대는 다시 차갑게 식어버리는 모양새다.
-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부정적 뉴스들에 따른 잡음이 다시 불거지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은 미-중 협상의 본질적 타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본격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는 다수의 연준 인사 발언이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투표권이 있는 뉴욕,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들의 발언을 통해 연준의 향후 통화정책 스탠스를 가늠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글로벌 달러 반응이 원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시간 **24 일(현지시간 23 일 오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재개될 조짐 속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이를 통해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 이번 주 챙겨볼 대내외 주요 경제지표로는 **23 일** 한국의 **9 월 20 일** 기준 수출입, 유로존과 미국의 **9 월** 제조업 PMI, **24 일** 미국의 **9 월** 소비자심리지수가 있다. 이후 **26 일**에는 미국의 **2 분기 GDP** 확정치 등이 발표된다.

<채권시장>

- 이번주 채권시장은 미국과 중국간 무역협상 진행상황과 미국 국채금리, 분기말 자금시장 움직임 등에 연동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금리 고점 인식 속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정신없이 몰아치던 매도세가 한풀 수그러든 모습이다. '그동안 많이 먹었으니 정리해야겠다' 생각한 투자자가 물량을 내놓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조정폭이 커졌다. **8 월**에 워낙 강한

랠리가 펼쳐지다 보니 원화채권 시장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그만큼 무거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하지만 기본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직 없다. 대내외 펀더멘털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다. 미국 경제에 대한 연방준비제도와 시장의 시각에서만 차이가 날뿐 다른 지역에선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 국내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국내 통화정책이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돌입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물가는 낮고 성장세는 취약하고 자본유출 가능성은 낮다. 일단 내년 **4 월**까지 **1%**를 영두에 두는 금통위원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4** 명의 금통위원이 교체된 이후는 현재 예상이 쉽지 않다. 기준금리 **1%**대에서 **0%**대로 진입하는 문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중장기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국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내년 수급 문제가 걸리지만 이 역시 대세를 돌릴 정도는 아니다. 조정은 있지만 반전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이를 감안하면 기준금리 대비 적정금리선을 선택한 후 일정 부분 매수하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분석)-美-中 사이의 균열, 무역협상으로 메워지지 않을 듯

베이징/워싱턴 (로이터) -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관세보다 더 깊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싸움으로 굳어졌다고 무역 전문가들과 관련업계, 또 양국 관리들은 입을 모은다.

중국 공산당은 경제를 운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미국의 요구에 꿈쩍도 안할 것으로 보이고, 미국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꼬리표를 떼주지 않을 것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은 지난 6일 양국간 갈등을 해소하기까지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위용딩 중국인민은행 전 정책자문은 로이터에 중국이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고 정치적 승리를 주장하기 위해 중간단계의 합의를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미국 무역대표부 출신이자 현 정책컨설팅업체 맥라티 어소시에이츠의 파트너인 켈리 메이먼 호크는 최종 합의에서 미국 등이 추구하는 "중국의 구조적인 개혁을 의미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협상단은 지난 5월 협상이 결렬된 이후 의견차를 보인 많은 부분에 있어 눈에 띄는 진전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 입장차

중국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자국이 국영기업들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이 언급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양국 소식통들은 말한다. 미국은 계속해서 중국 기술업체인 화웨이가 자국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중국에 대한 새 관세 카드를 내보이고 있다.

인민대 재정학연구소의 허웨이원은 "협상의 궁극적인 결과는 모든 관세의 폐지가 되어야한다"면서 "이것이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을 낙관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무역 협상이 결렬된 이후 양국 모두 약속을 어겼고, 공개적으로 설전도 주고받았다. 현재의 분위기는 낙관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하나만으로도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애널리스트들은 우려한다.

◆ 구조적 변화

트럼프의 대중 강경 스탠스는 그가 내놓은 다수의 정책에 대한 인기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계에서 중국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불러왔다. 대부분의 이슈에 대해 당론에 따라 양분된 모습을 보이는 미국 의회는 중국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해도 중국과의 관계를 이전으로 되돌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9월 12일 토론에서 중국의 무역관행을 언급하면서 부패와 절도 같은 단어들을 사용했다.

법무법인 호건 로벨스의 파트너로 미국 무역대표부 법률자문을 맡은 적이 있는 워런 마루야마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다"면서 "중국이 미국식 자유시장 경제로의 개혁 중에 있다는 예전의 생각은 사실상 없어졌다"면서 "대중 강경 정책에 대해 초당파적 지지가 있다"고 말했다.

의회 의원들도 행동에 나서고 있다. 신장 자치구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중국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과 홍콩 시위대를 지지하는 법안 등 여러 중국 관련 법안들이 의회에 계류중이다.

게다가 2020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기술이전에서 합성 오피오이드(진통·마취제) 판매 등과 관련, 중국을 겨냥한 조항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 정치적 압박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자신이 시행한 관세 등의 이유로 경기 둔화, 그리고 침체 우려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요 지지층은 돌아서지 않

았다. 중국내 미국 기업 임원들은 중국이 무역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한 중국내 미국 기업 고위 임원은 "무역전쟁은 재계에서는 단합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전 미국 상무부 고위 관리였던 크레이그 앨런은 "문제들이 아주 뿌리깊고, 구조적"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스파이 행위와 사이버 해킹,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로 양국의 첨단기술업종이 영구적으로 단절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오는 10월 1일 건국 7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은 경기 둔화에도 직면해있다.

중국내 많은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번덕스러운 태도 때문에 시 주석이 경기둔화의 이유로 국내 정책이 아닌 백악관의 관세 인상을 내세울 수 있게 되는 등 쉽게 정치적인 구실을 얻을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시 주석은 이달 당 간부들에게 공산당의 리더십과 중국의 주권 및 안보에 대한 리스크와 도전, 그리고 자국의 핵심 이익에 위협이 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단호히 투쟁해야한다고 말했다.

리서치업체 로디움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과 미국 간의 투자는 5년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양국간의 외국인직접투자와 벤처캐피탈 달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49% 줄어든 130억달러를 기록했다.

(초점)-FOMC·분기말·금리인하·수급..이자율 달러 최대 화두는 '지키기'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를 지켜본 채권, 스왑 등 이자율 달러들의 반응은 대체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해할 수 있는 선택을 했다'는 쪽이다. 시장 예상보다 연준의 선택이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이번에 나온 결정 이상으로 완화적 시그널을 주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분명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차례 금리조정이 더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딜러들이 많았다.

▲ 단기물 시장, 다음주 중반 이후 회복 가능성

FOMC 이벤트가 마무리된 가운데 딜러들의 시선은 분기말 자금시장 상황, 다음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맞춰지고 있다.

FOMC 회의 결과가 '서프라이즈'가 아니었던 만큼 국내 시장은 '원래 갈 길을 갈 것'이라는 진단이다.

기업들의 자금 환매가 마무리되는 다음주 중반까지는 단기물 시장의 정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지만 이후부터는 10월 금통위에 대한 기대감 속에 매수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사의 한 채권딜러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어느 정도 중립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FOMC 내 의견 분포를 감안해 균형을 맞춰 이야기했다고 봐야 할 듯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5%인 상태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충격을 받았겠지만 시장에선 이미 어느 정도 이런 우려를 프라이싱해왔다"며 "원화 채권시장은 분기말 이슈로 단기쪽이 조금 취약하지만 앞으로는 짧은 채권에 대한 해지를 조금씩 풀면서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의 한 채권매니저는 "단기물 시장은 8월 말에 많이 안 좋았고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며 "10월 금리인하 기대감을 감안하면 다음주 중반 이후부터는 매수로 돌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무역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관건이긴 하지만 연내 한 번의 금리인하에 맞춰져 있는 현재 금리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1.5년에서 2년 만기 물건은 사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크게 먹을 게 없는 1년 안쪽 구간 채권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10월 금통위 금리인하 컨센서스..가장 중요한 건 '수익낸 것 지키기'

대다수의 달러들은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기준금리가 인하된 이후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 엇갈린다.

연말 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이미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언제가 될지 아직 예상하기 어려운 금리 인하를 기다리며 무거운 롱포지션을 들고 가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국내 금리가 이미 큰 폭의 조정을 받은 상황이고 내년 추가금리 인하까지 기대되는 상황에서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한 가지 달러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지키기'다. 최근 다소 손실을 보기는 했지만 올해 전체로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큰 수익을 낸 만큼 연말까지 크게 무리하지 않는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시중은행의 한 이자율딜러는 "이번에 연준이 행동만 해주면 우리도 낮출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금통위원들 사이에 잡혀 있었을 것"이라며 "연준의 이번 금리인하로 다음달 국내 금리인하의 필요충분조건이 충족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부터 역외에서 이자율스왑(IRS) 단기 오피 강하게 나오고 있다"며 "금리인하에 대해선 크게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외은지점의 한 이자율딜러는 "다음달 금통위 전까지는 3년물 기준 1.35% 수준에서 크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추가인하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겠지만 기준금리 대비 10bp 정도의 캐리를 가지고 내년까지 상당한 기간을 버틸 수 있을지, 당장 올해 연말을 잘 넘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많은 기관들의 관심사는 결국 그동안 번 것을 지키는 것이라 막상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정리하고 싶어하는 곳이 많을 것"이라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연말에 1.50% 근처, 10년물 금리가 1.80%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자금운용부장은 "금리가 다시 연저점을 향해 가기에는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 듯하다"며 "증권사의 경우 북클로징 정도는 아니지만 리스크 관리 모드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다들 배가 많이 부른 상황인데 이제는 조정도 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만큼 포지션을 가볍게 가려고 할 듯하다"며 "금리가 인하되면 캐리가 정상화되겠지만 일년 내내 역캐리였기 때문에 당장 캐리 여부는 큰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게 그동안 수익낸 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진단)-반등 탄력 확인한 달러/원, 매파 연준 더 해지면 상승 전망 견고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지난 7월 이어 또 다시 매파적 인하라는 평가가 내려진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를 소화하며 달러/원 환율은 19일 1200 원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8일(현지시간)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1.75-2.00%로 25bp 인하해 예상대로 올해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보험성 금리 인하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무엇보다 점도표에서 연내 추가 금리 인하는 시사하지 않았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앞으로 지표에 많이 의존할 것이다. 우리는 미리 정해진 코스를 따라가지 않으며, 회의 때마다 결정을 내릴 것"이라면서 "우리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할 때 금리 인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연준의 매파적 시그널에 달러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미국 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다만 지난 7월에 비해 국내외 금융시장의 반응 정도는 양전했다.

파월 의장이 경제가 하강할 경우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면서 조건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데다, 무엇보다 미-중 실무협상 재개와 미국의 소비와 고용, 물가 등을 감안해 시장이 매파 연준에 대한 시장 기준치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물론 향후 연준 통화정책은 여전히 안갯속이지만 9월 회의 불확실성은 일단 해소됐다. 이런 가운데 달러/원 환율에 대한 상승 추세는 재확인되는 분위기다.

▲ 공고해지는 저가 매수 전략

환율은 이번주 추석 연휴기간 발생했던 갭을 빠르게 메웠다. 이를 두고 시장참가자들은 달러/원 1180원대 하방경직성을 확실히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 완화에 따른 심리 개선만으로는 환율 상승 추세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함께 내렸다.

A은행의 외환딜러는 "여러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최대 정점은 지났지만 해결된 건 없다. 대외 여건 완화에 환율이 잠시 반락했지만 환율 하방경직성을 확인한 이후 갭은 금새 메워졌다"면서 "그간 시장참여자로 하여금 1200원 아래는 매력적인 저점 구간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연준 회의 결과가 나온 만큼 환율은 단기적으로 1200원대를 지지 기반으로 넘나들 것으로 예상하면서 추세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덧붙였다.

B은행의 외환딜러는 "연휴 이후 환율이 120일 이평선을 하향돌파했다면 모를까 환율의 중기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220원을 넘어서면서 상승압력을 대폭 키웠던 때와 비교하면 시장 심리는 일방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환율 하락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저울질은 여전히 소극적이다.

글로벌 달러가 강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달러/원 추가 상승을 지지한다.

이런 가운데 환율은 여전히 상수가 아닌 변수로서의 영향력이 큰 미-중 무역협상 결과를 앞두고 저점 매수 인식을 공고하게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선물은 이날 보고서에서 "이제 시장은 10월 무역협상으로 시선을 옮기는 가운데 신흥통화들은 미중 협상 대기와 중국 지표 부진 속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